

2015 U대회 유치 이것이 관건

④ '준비된 광주' 각인 시켜라

투표 직전 '명품 PT'로 표심 확 잡는다

스포츠 인프라 등 실사서 드러난 미비점 보완 서둘러야

광주시가 국제 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2015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유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광주를 부각하는 마지막 기회인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6일~9일 진행된 FISU의 광주 실사서 미비점으로 부각된 스포츠 인프라 등을 서둘러 보완해 광주시의 강점으로 부각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최종 PT는 다음달 23일 2015U대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FISU 총회에서 진행된다. FISU집행위원 27명이 참석하는 총회는 광주시를 비롯해 대만 타이베이, 캐나다 에드먼턴 등 U대회 개최 도시들의 PT에 이어 집행위원 자체회의, 최종 개최지 표결 순으로 진행된다.

유치 후보 도시의 대회 개최 역량을 제시하는 PT는 최종 표결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로, 실사평가 결과와 더불어 집행위원들의 표심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이번 실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물론 자체 진단에서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를 철저히 보완해 최종 PT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도시라는 확신을 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3대회 유치에 도전했던 광주시는 2013U대회 PT와 한층 참신하고 차별화된 PT를 제시하는 것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FISU실사에서 1, 2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기존 경기장 리모델링 재할용 등 전반적인 스포츠 인프라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5명의 실사위원 가운데 지난해에도 광주를 방문한 위원이 4명임을 고려하면 '의례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평가에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13년 실사에서도 실사단으로부터 스포츠 인프라 등에 대해 호평받았지만, 막상 실사평가 결과를 교토 접견장, 스포츠 인프라에서 문제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실사에서 실사위원들은 탁의실, 선수대기실 등 광주시가 미처 예비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대회 준비를 주문했다.

실사단은 광주시의 단점으로 경기장시설이 FISU가 제시한 기술적 요건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부분이나 국제대회 개최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꼽아 5월 FISU 집행위원회 프레젠테이션까지 이 부분을 서둘러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했다.

경기장의 안전성과 편의시설 등 선수 입장에서 바라본 스포츠시설의 보완점도 적지 않았다.

천연잔디구장의 확충이나 탁의실, 워밍업 공간 등 편의시설, 실내체육관의 조명시설 조도, 경기장 안전성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경기장의 탁의실이나 기차실, 도핑컨트롤 등이 FISU가 제시한 기술적 요건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사에서는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은 데다 지적사항도 곧바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긍정적이다"며 "FISU 총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대회 광주 유치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장인 스테판 버그(오른 쪽) 집행위원 등이 지난 6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 광주시의 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세계광엑스포 D-180



오는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되는 '2009광주세계광엑스포'의 주무대가 될 상무시민공원 일대 행사 아간 조감도.

참가국 확보 성패 갈라 내달까지 46개국 유치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의 성공 개최 여부는 국가와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빛'이라는 주제로 여는 최초의 엑스포라는 점, 첨단기술과 재미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 등이 부담이지만, 현재까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11개 국가 14개 도시와 필립스(Philips), 쏘(Thorn), PLDA(Professional Lighting Designers' Association) 등 유수의 기업들이 최종 참가 의사를 통보해왔다.

광주세계광엑스포재단은 세계적인 기업인 스포츠재단은 세계적인 기업인 필립스나 쏘와 함께 조영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PLDA가 참여하면서 세계빛도시참여관은 물론 전체적인 전시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높은 참가 열기는 지난해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빛도시연합(LUCI) 2008년 연차총회에서 광주시가 13개 아시아 회원도시 중 최초로 집행위원도시로 선출됐으며, 2009년 LUCI 연차총회를 엑스포 기간 중 유치하는 등 시의 사전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이다.

광주세계광엑스포 재단은 6개의 전시회와 12개의 컨퍼런스 및 컨벤션 등에 모두 1천개의 업체가 참여하면서, 부스만 1천470개나 설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다음달까지 세계빛도시연합(LUCI)의 53개 참가국 중 30곳에서 최대 46곳까지 참여 의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세계광엑스포 재단 이장은 기획조정팀장은 "세계적인 경기장 설계 속에서 어떻게 참가업체를 유치하느냐가 이번 엑스포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유치활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도시나 기업들을 직접 접촉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광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시는 광주가 '빛의 도시'로서 국내·외적으로 자라매김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세계적인 첨단 광기술을 받아들여 이를 통해 지역 광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등 엑스포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빛의 축제'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시민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시의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고, 한편으로 이를 도시개발전략과도 연계시키면서 '빛의 도시'로서 도시를 마케팅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진태 광주세계광엑스포재단 사무총장은 "광엑스포를 통해 궁극적인 광주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후 이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번 엑스포가 지역 내 광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광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정립되며, 선진도시와 같은 야간경관을 가질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기기자 chadod@kwangju.co.kr

필립스·쏘·PLDA 등 참가 통보 세계 1,000여개 업체 참여 전망

도청 별관 공사 방해 금지 결정...5월 단체 농성 풀까 내일 입장 발표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5·18 부상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및 방해물수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향후 법적 수순과 5월 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12일 5월 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결정분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를 거쳐 14일 기자회견, 간담회 등 행사를 벌여 향후 투쟁 방향 등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5월 단체는 법원의 결정으로 농성을 지

속할 경우 현실적으로 법적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공사방해 금지 결정을 어길 경우 5월 단체에 1일 5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추진단은 5월 단체들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뒤 3일 내에 농성을 풀다면 가처분 신청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주 내로 5월 단체들과 실

무협상을 재개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해법을 찾는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추진단이 5월 단체들이 농성을 지속할 경우 결정문을 토대로 법원 집행관에게 농성장 철거 등을 의뢰할 가능성도 있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또 추진단이 5월 단체들을 상대로 문화전당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 수순을 넘어 일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5월 단체들과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며 "그러나 더 이상 문화전당 공사가 지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불교협의회(상임대표 영조)는 14일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최형 문화수도조성위원장 등을 초청, '목탁포럼' 창립 총회를 갖고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재)전남테크노파크공고 2009-11호 (재)광주테크노파크공고 2009-15호

2009년도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지원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지식서비스바우처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가. 목적
○ 광주·전남지역(호남광역권)에 소재한 전략산업 관련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식서비스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역별 5억원 이내
○ 지원방식 : 국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국비지원 70 대 기업부담 30)
○ 지원기간 : 3 ~ 6개월 (사업신청 시 선택)
○ 지원방법 : 지역 전략산업기업에 대하여 5개 분야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
- 1기업 당 1개 분야 1바우처 지원
- 바우처 종류 : 10종류 (5백만원권 ~ 5천만원권)
* 지식서비스바우처 : 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지급보증증서다.

다. 지원분야
○ 디자인 (제품, 시각, 포장디자인) ○ 시험분석 (연구개발, 시제품, 완제품)
○ 이력관리 (이력관리 컨설팅, 구축, 특화콘텐츠 개발) ○ 컨설팅 (경영, 기술, 생산컨설팅)
○ IT서비스 (IT서비스 도입, 구축, 운영) * 세부내역은 사업설명회 및 홈페이지 참고

라. 지원대상 자격조건
○ 지원대상 기업은 전남의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생물, 신소재, 조선)과 광주의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광, 디지털정보기술, 자동차부품소재, 디자인)
○ 지식서비스공급기관의 자격요건은 설명회 및 홈페이지 자료 참고

2. 지원절차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신청접수	4. 15(수) 13:30~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회의실	광주, 전남, 전북

* 사업설명회에서 지원대상 자격조건 등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예정임

3.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 수요기업이 자격요건에 맞는 지식서비스공급기관을 탐색·선택하여, → 공급기관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요기업신청서를 작성 후, → 수요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TP에 제출 (* 공급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 TP에 문의)
○ 신청서 접수 : 2009. 4. 13(월)부터 ~ 4. 30(목) 18:00까지
○ 신청서 교부 : 전남TP, 광주TP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http://www.jntp.or.kr>, <http://www.gjtp.or.kr>)
○ 접수방법
-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소재 해당TP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명서류를 접수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봉투 겹면에 "지식서비스바우처사업 지원사업계획서"를 반드시 표기
○ 접수 및 문의처

소재지	접수처	주소	우편번호
전남	전남TP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울촌재1지방산단지 6블럭	540-856
광주	광주TP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500-706

4. 유의사항

○ 공급기관은 전국별 최대 10개까지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과제 참여 가능. 단, 광역경제권별로는 5개까지 참여 가능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http://www.jntp.or.kr>, <http://www.gjtp.or.kr>) 및 사업설명회 참조